ISSN 2586-7199

2024
상반기

해외농업 JOURNAL

Vol. 33

특별·전문가기고
국제식량안보 정세분석

기획특집
기후변화/지속가능한 농업 [탄소배출권]

현장인터뷰
신규 진출기업 Q&A [캄보디아편]

글마당
국제곡물전문가 과정 참여 후기

국제 식량안보 정세 분석 및 과제

이준원 FAO 한국협회장 겸 AARDO 극동지역사무소 명예대표

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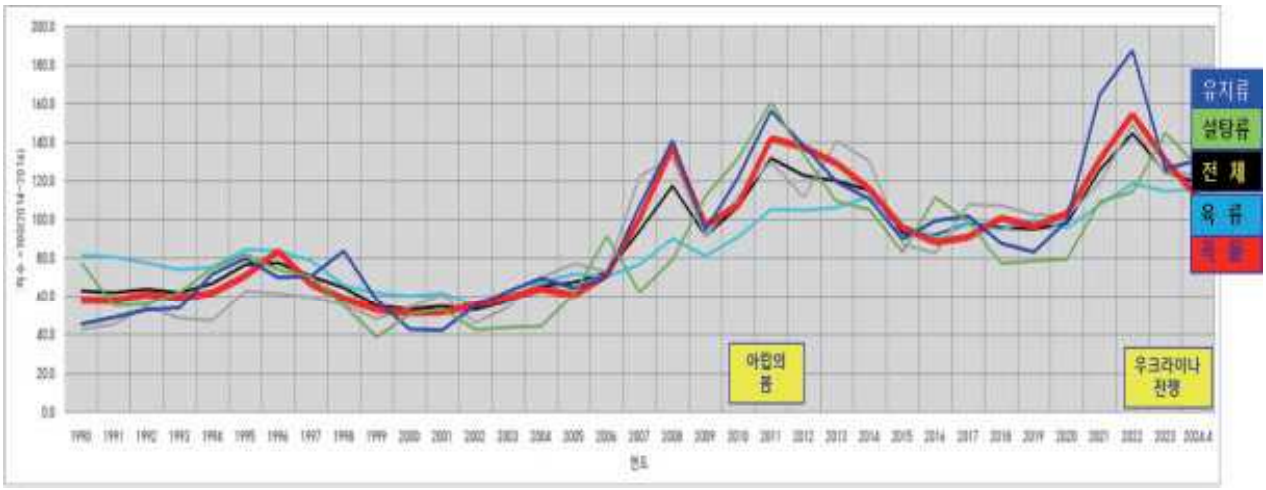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기준연도(2014~2016)에 비해 60% 상승하였다. 특히, 곡물류 지수는 70%, 유지류 지수는 152%로 폭등하였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식량가격지수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가격지수는 기준연도에 비해 19% 상승하였고, 곡물류 지수는 11%, 유지류 지수는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그림 1).

사실 식량가격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0년간 안정세를 보였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식량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공산품과 같이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이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 식량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반 국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표 1] FAO 식량가격지수(FAO, 2014~2016=100.0)

연도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2023	2024.4
전체 식량가격지수	63.0	53.3	67.4	106.7	93.0	98.1	144.7	124.7	119.1
유지류	45.5	42.9	64.4	122.0	89.9	99.4	187.8	126.3	130.9
곡물	58.1	51.4	60.8	107.5	95.9	103.1	154.7	130.9	111.2
육류	81.5	60.3	71.8	91.0	96.7	95.5	118.8	114.7	116.3
유제품	42.6	54.5	77.2	111.9	87.1	101.8	149.5	123.7	123.7
설탕	77.7	50.6	61.2	131.7	83.2	79.5	114.5	145.0	127.5

출처: FAO World Food Situation



[그림 1] FAO 식량가격지수(FAO, 2014~2016=100.0)

출처: FAO World Food Situation

우리는 식량 위기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였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통제하던 소련 공산주의 제국을 1991년 말 하루아침에 붕괴시켜 버렸다. 10년 전 소위 아랍의 봄도 식량 가격 폭등이 기폭제가 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며 일어난 것이고, 이는 튀니지, 이집트 등의 정권 교체와 사회적 혁명으로 발전되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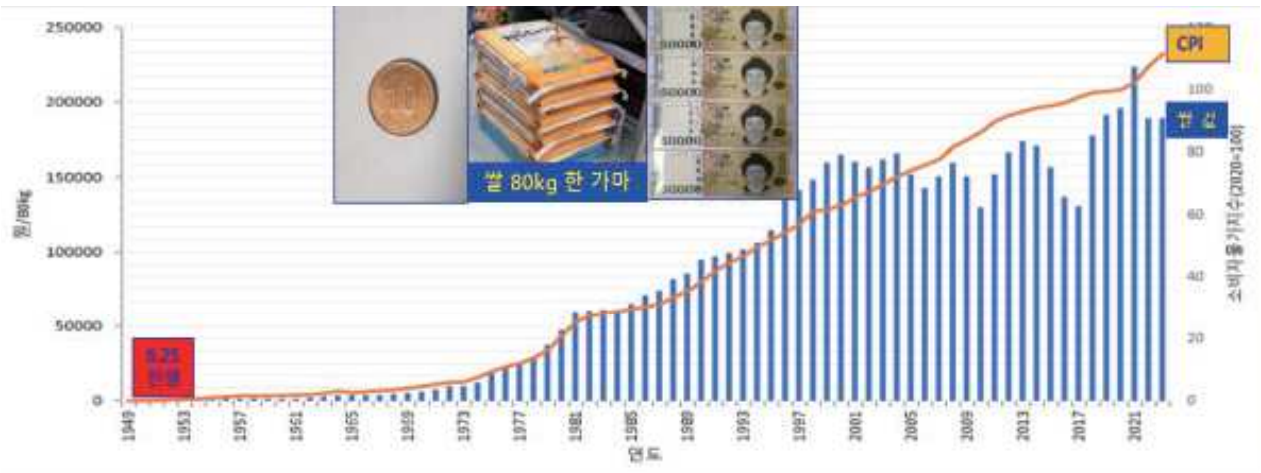
한국도 6.25 전쟁 중 가마당(80kg) 쌀 가격이 9.5원에서 484원으로 51배 폭등하였다(표 2/그림 2). 현재 쌀값 기준으로 가마당 2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과거 한국전쟁 때 북한이 휴전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에도 식량 문제가 크게 작용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전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Mark Wayne Clark)은 공산주의자들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저수지 폭격 작전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작전은 1953년 5월 13일 미 전투기 편대가 평양 부근 덕산저수지를 폭격하면서 시작됐

다. 당시 많은 저수지 둑이 붕괴되면서 철도와 비행장이 유실되고 평양까지 보급로가 차단됐다. 북한은 모든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야만 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5월 식량 생산 기반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자 북한은 협상장으로 돌아왔다. 식량안보 문제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표 2] 쌀값과 CPI 지수 동향

	1949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쌀값 (원/80kg)	9.554	24.172	1,368	5,784	47,063	95,156	165,320	130,195	196,009	223,771	188,699	189,208
CPI (2020=100)	0.01222	0.03269	1.71432	4.65	20.965	38.48	63.151	86.373	100.0	102.5	107.72	111.59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쌀값과 CPI 지수 동향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가 흘러간 레코드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첫해인 2022년 연말 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시(戰時)에 중요한 식료품 가격이 34%, 교통 요금이 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쌀 가격 상승률은 108% 폭등했다. 그러나 자급 품목인 주곡인 밀가루는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가는 전쟁에도 우크라이나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강대국인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곡인 밀의 자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식인 쌀의 자급 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세계 식량 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가.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 현황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00년 56%에서 2022년 49%로 하락하였고, 가축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동기간 30%에서 22%로 떨어졌다(표 3). 전체 곡물 수요량 약 2,300만 톤 중 500만 톤 수준을 제외한 1,800만 톤을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다. 주곡인 쌀만 자급할 뿐 밀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콩도 식용만 일부 생산하고, 가공용이나 사료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그 결과 자급률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쇠고기의 자급률도 38% 수준으로 2022년 쇠고기 수입량은 50.7만 톤, 수입액은 45억 불로 전년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낮은 자급률은 유사시에 특히 국내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 거시경제지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3] 생산량 및 자급률

(단위 : 천 톤, %)

구분		단위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식량/곡물	전체	생산량(천 톤)	7,013	5,931	5,511	4,915	4,721	5,054
		식량자급률(%)	70.3	55.6	54.1	49.3	44.4	49.3
		곡물자급률(%)	43.1	29.7	27.6	22.4	20.9	22.3
	쌀	생산량(천 톤)	5,898	5,263	4,916	3,744	3,507	3,882
		식량/곡물 자급률(%)	108.3	102.9	104.5	92.9	84.6	104.8
	밀	생산량(천 톤)	1	2	39	17	26	35
		곡물자급률(%)	0.1	0.1	0.9	0.5	0.7	0.7
	콩	생산량(천 톤)	233	113	105	81	111	130
		곡물자급률(%)	20.1	6.8	10.1	7.5	5.9	7.7
육류	전체	생산량(천 톤)	775	1,189	1,395	1,993	1,984	2,011
		자급률(%)	81.6	65.3	64.5	68.9	67.3	63.9
	쇠고기	생산량(천 톤)	95	214	195	249	264	290
		자급률(%)	52.5	47.4	44.3	37.2	36.8	37.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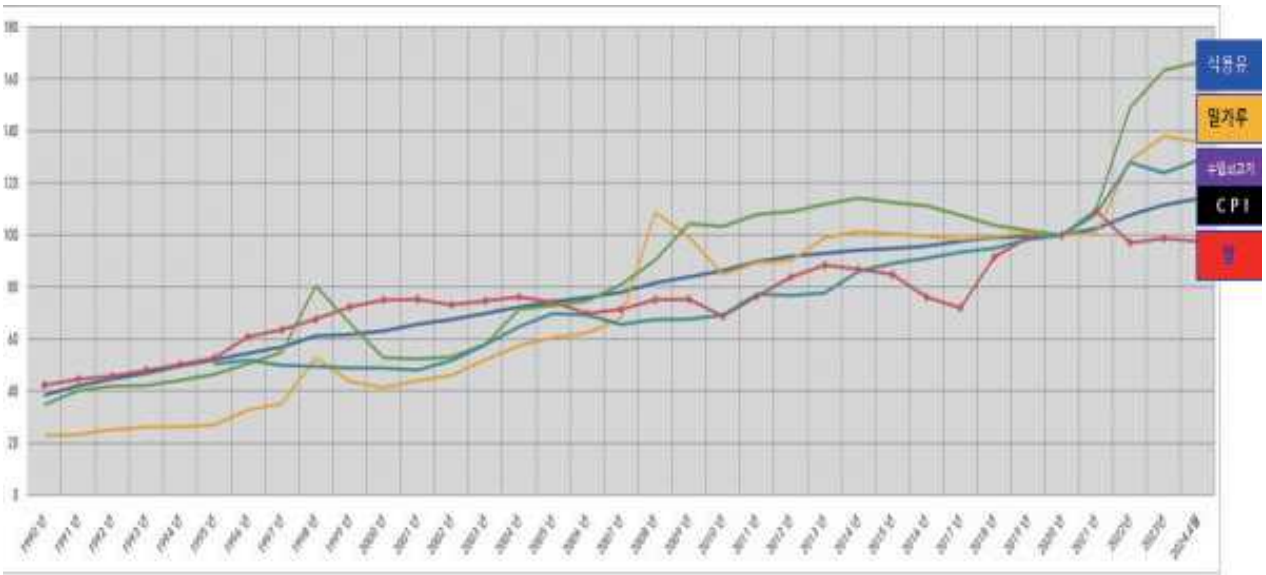
나.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최고치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식량가격지수가 급등하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전체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 상승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국제 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오른 품목인 식용유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66% 상승하였고, 밀가루는 38%, 수입 쇠고기는 28% 급등하였다(표 4/그림 3). 반면 자급률이 높은 주식인 쌀의 소비자가격지수는 오히려 2% 하락하였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 안정이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쌀 자급을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모두 실감한 기간이기도 하다.

[표 4] 전체 및 주요 농식품 CPI 동향(2020=100)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2024.4
CPI	38.48	63.15	86.40	100	102.50	107.72	111.59	113.99
식용유	34.79	52.86	103.36	100	109.68	149.00	163.4	166.49
밀가루	22.87	41.32	84.95	100	100.67	128.83	138.05	138.49
수입쇠고기	-	48.91	69.23	100	108.13	127.94	123.95	128.69
쌀	42.30	75.06	68.82	100	109.40	97.08	98.71	97.65

출처: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그림 3] 전체 및 주요 농식품 CPI 동향(2020=100)

출처: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 발생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식량 가격 급등은 전체 무역수지를 2022년 478억 불 적자로 전환시켰다. 2022년 농축수산물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55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밀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 팜유는 23%, 옥수수는 32%, 콩(대두)은 27%,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18% 늘었다. 심지어 커피 원료 수입액도 13억 불로 42% 증가하여 2022년 커피 수입액이 사상 최초로 10억 불을 돌파하였다(첨부 참조). 2022년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라고 하나 120억 불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가 43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478억 불)되고, 적자의 대부분을 농축수산물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표 5/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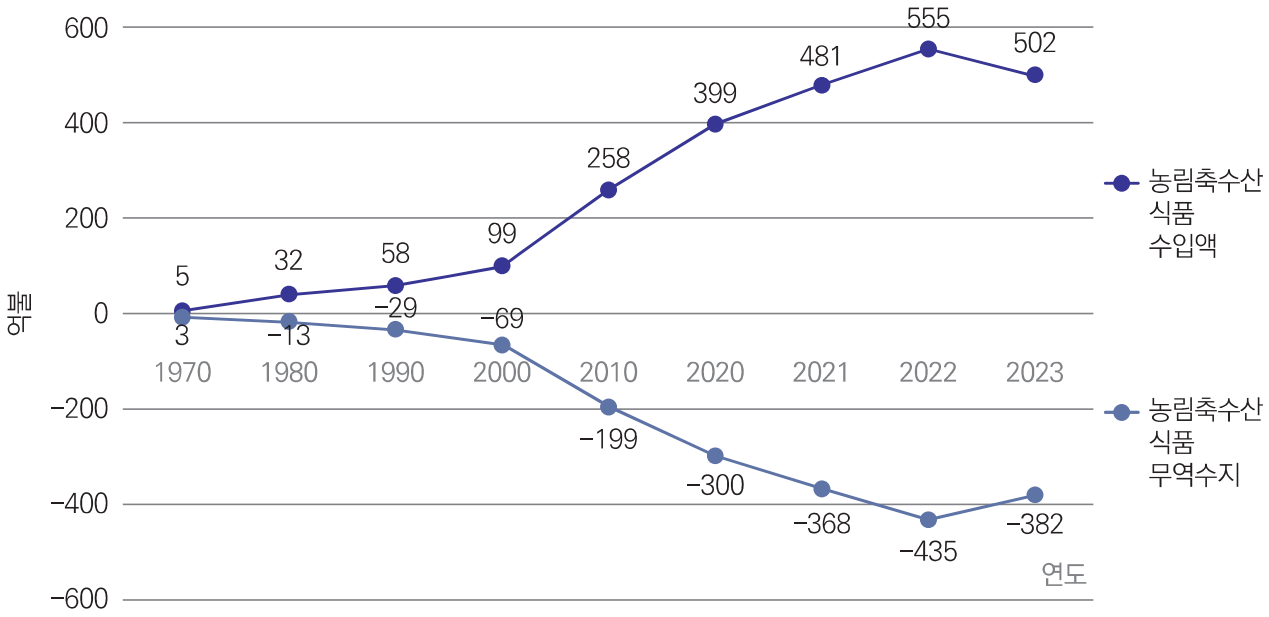
2023년 국제 식량 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농림축산물 무역수지의 적자는 382억 불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것은 수출액은 그대로인 반면 수입액이 502억 불로 53억 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5] 무역수지(통관 기준)

(단위 : 억 불,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전체 수출액	8	150	599	1,695	4,638	5,128	6,445	6,836	6,327
농림축수산식품	2	19	29	30	59	99	113	120	120
비중(%)	26.1	11.0	4.5	1.8	1.3	1.9	1.8	1.8	1.9
전체 수입액	20	216	631	1,539	4,159	4,672	6,151	7,314	6,427
농림축수산식품	5	32	58	99	258	399	481	555	502
비중(%)	23.6	14.2	8.3	6.1	6.1	8.5	7.8	7.6	7.8
전체 무역수지	-12	-66	-33	156	479	456	295	-478	-100
농림축수산식품	-3	-13	-29	-69	-199	-300	-368	-435	-382

출처: 한국농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그림 4] 무역수지(통관 기준)

출처: 한국농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3. 우리의 식량안보 과제

유사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군대와 식량이다. 우리는 국방 안보를 위해 50만 대군을 상시 운영한다. 관련 예산도 2024년 6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자급률은 매년 감소하여 식량자급률 49%, 곡물자급률 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대 정부가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농지 면적의 감소와 낮은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농지 면적은 1990년 211만 ha에서 2023년 151만 ha로 28% 줄었고, 농가 인구는 동기간 666만 명에서 209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체인구의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처음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자급률이 낮은 밀의 2015년 자급률 목표를 1%로 설정했지만, 곡물 가격이 불안해지자 목표를 과감하게 10%로 높였다. 그러나 밀의 자급률이 계속 1%에도 미치지 못하자 2018년 목표 재설정 시 자급률 목표를 2022년 9%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2020년 농업인의 날에 이 목표를 다시 10%로 환원하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실제 밀 자급률은 2022년 0.7%에 불과하여 2030년 목표 10%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됐다.

이제는 과거처럼 먼 미래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식, 희망고문 식의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식량자급률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생산 노력과 함께 해외농업 개발 및 무역 원활화 등을 통해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식량안보를 위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 해외농업 개발의 내실화

한국은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아 식량안보 차원의 해외농업 개발이 절실하였다. 우리나라 해외농업 개발의 시초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해외 농업 이민이다.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식량안보 등 목적으로 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농업이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영농 부적합지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1978년 매입한 약 2만 ha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의 농장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농업 이민을 담당했던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개편되었다.

1990년대에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의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영농 경험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철수하였다. 2008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만 포함하는 자급률 대신 해외 조달을 포함하는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였다. 해외농업 개발과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를 통해 곡물 640만 톤을 반입하여 곡물 자주율(국내 생산 + 해외 곡물 생산 + 곡물 엘리베이터)을 6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2015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확대)을 제정하였고,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330억 원에 달했던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융자금)은 대기업 특혜 등 논란으로 2024년 67억 원에 불과하게 됐다. 또한 62개 기업이 29만ha를 개발하여 2021년 63만 톤을 국내 반입하였으나,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반입량이 26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은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해 우리보다 50년이나 앞선 60년대 중반부터 농협 중심으로 미국 남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곡물 수입에 필수적인 수출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였다. 농협 외에도 4개의 종합상사가 미국에서 곡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3,000만 톤 곡물 수입 중 70%인 2,000만 톤을 곡물메이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식량 위기 때만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두었다. 지난 10년간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자 식량 안보 문제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이다. 다행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식량 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롯데상사의

연해주 곡물 개발사업 진출, 팬오션의 곡물 수출터미널 진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오일팜 농장 개발 등 성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농업 투자가 성공하자 관련 기업의 주식도 덩달아 크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농업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 기업인 P기업의 주가는 2020년 1만 원 대에서 2023년 최고 9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해외농업 투자 기업이 이제 어엿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나.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한 공급망 확보

해외농업 개발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무역 질서를 위해 창설된 WTO가 무력화되면서 수입을 통한 곡물의 안정적 확보도 한계를 보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WTO를 국제무역 규범의 제정을 위한 장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치 투쟁의 대결장으로 변질시켰다. 또한 WTO 규정상 원칙적으로 수출 금지를 허용치 않지만,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 팜유 등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소가 힘들고, 판결에 시간이 걸려 당장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개최된 2022년 6월 WTO 각료회의는 농산물의 불필요한 수출 금지를 자제하자는 선언을 발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WTO가 국제무역 질서 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비상 식량의 공급선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WTO와 같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다자무역체제보다는 동일한 원칙과 철학을 가진 국가들끼리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경제협의체를 맺어 무역을 원활화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

IPEF 등 통상협상 시 특히 유의할 점은 이념적 개방 반대 세력에 휘둘려 소탐대실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 쌀 관세화 협상 시 '쌀 관세화가 쌀 전면 개방'이라는 반대 세력의 선동에 휘둘려 관세화가 10년 지연된 바 있다. 쌀 TRQ 수입량이 매년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늘어나는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다. 농업 부문 국제개발협력 강화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1962년 필리핀의 1인당 GNI는 220달러로 한국의 120달러보다 두 배 높았으나, 2021년 한국은 35,000달러, 필리핀은 4,000달러로 이제 한국이 9배 높다.

전 세계 기아 인구는 필자가 로마 FAO 본부에 근무할 때인 2000년대 초 8억 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20년 후인 2022년에도 약 7억 3,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제기구의 노력과 각국의 식량 원조 및 국제개발

협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아 인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위상에 걸맞은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2배로 늘리고, 2024년부터 식량 원조 규모를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확대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K-rice belt'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특히, 민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조정을 위해 차관 주재의 글로벌 농림협력 협의회와 해외농업개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속 기관의 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한국에 있는 AARDO(아시아아프리카 농촌개발기구), 아시안산림협력기구(AFoCO) 등의 농업 관련 국제기구나 KOICA,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농업 개발이나 TRQ 도입 등과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UN 식량계획(WFP)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2018년부터 매년 많은 쌀을 원조하고, 여러 ODA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주요 생산자인 참깨의 경우, 에티오피아산 참깨를 취급하는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 대리인은 '21년 이후 국영무역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에티오피아 해외농업 투자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ODA 사업, 식량원조, 해외농업개발사업, TRQ도입까지 정책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농촌의 가난과 기아를 극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아프리카 농촌개발기구인 AARDO (African-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창설 멤버이다. 1963년 창설 당시 이 기구에 가입하였고, 1973년에는 극동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Far East, FERO)를 서울에 어렵게 유치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ARDO 극동지역사무소가 한국에 있으니, 향후 아프리카국과의 K-rice belt 사업이나 식량원조 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농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해외농업 개발, TRQ 도입,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원조, 국제기구와 국내기관의 해외 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농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전 세계 기아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 위기도 해결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윈윈(win-win)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2022년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액

(단위 : 천 톤, 백만 불, %)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률(%)	
		물 량 (천 톤)	금 액 (백만 불)	물 량 (천 톤)	금 액 (백만 불)	물 량	금 액
전체		61,443.0	48,053.4	62,490.7	55,487.6	1.7%	15.5%
농 산 물		36,513.5	25,288.5	37,320.2	29,763.6	2.2%	17.7%
1	옥수수	11,690.5	3,241.5	11,844.1	4,291.7	1.3%	32.4%
2	혼합조제식료품	304.3	2,422.4	306.6	2,596.9	0.8%	7.2%
3	밀	4,435.9	1,360.9	4,421.1	1,801.2	-0.3%	32.4%
4	커피 (커피조제품 별도)	189.5	916.5	205.1	1,305.0	8.2%	42.4%
5	대두	1,277.9	755.9	1,313.2	956.6	2.8%	26.6%
6	대두박	1,752.4	815.8	1,679.3	920.7	-4.2%	12.9%
7	사탕수수당	1,847.4	792.5	1,834.8	900.0	-0.7%	13.6%
8	팜유	614.9	671.2	586.1	825.7	-4.7%	23.0%
9	쌀	492.9	402.6	483.2	454.5	-2.0%	12.9%
10	에틸알코올	405.7	311.5	425.6	419.1	4.9%	34.6%
11	포도주	76.6	559.8	71.0	581.3	-7.3%	3.8%
12	사료용 근채류	983.1	333.1	1,088.6	443.8	10.7%	33.2%
13	대두유	450.8	575.8	374.2	616.6	-17.0%	7.1%
14	바나나	351.9	290.2	319.9	283.9	-9.1%	-2.2%
15	반려동물 사료	64.8	308.5	71.1	347.3	9.8%	12.6%
16	양조박(Brewage pomace)	1,082.9	322.8	1,175.0	403.7	8.5%	25.1%
17	배합사료	721.3	263.7	690.3	292.1	-4.3%	10.8%
18	위스키	15.7	175.3	27.0	266.8	72.6%	52.2%
19	잎담배	36.5	188.8	40.8	222.5	11.7%	17.9%
20	맥주	257.9	223.1	228.7	195.1	-11.3%	-12.6%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감률(B/A)	
		물 량 (천 톤)	금 액 (백만 불)	물 량 (천 톤)	금 액 (백만 불)	물 량	금 액
	축 산 물	1,846.8	9,177.0	1,978.2	10,996.6	7.1%	19.8%
1	쇠고기	504.8	3,805.9	507.3	4,507.5	0.5%	18.4%
2	돼지고기	466.2	1,833.6	587.3	2,168.2	26.0%	18.2%
3	치즈	156.5	685.4	154.1	792.8	-1.6%	15.7%
4	닭고기	176.3	396.7	215.7	613.1	22.3%	54.5%
5	기타 양모 등	3.0	314.8	3.4	383.2	15.2%	21.7%
6	유장(Whey)	84.9	200.4	84.5	253.3	-0.5%	26.4%
7	면양고기	18.0	169.9	23.6	239.2	31.0%	40.8%
8	펩톤	19.7	177.3	23.0	208.3	16.5%	17.4%
9	양장(CATTLE & PIG INTESTINE)	27.6	113.1	26.1	121.7	-5.4%	7.7%
	수 산 물	6,371.1	6,148.7	6,439.0	6,916.7	1.1%	12.5%
어 류	1. 명 태	321.6	500.9	377.3	601.1	17.3%	20.0%
	2. 연 어	62.7	476.2	76.6	586.0	22.1%	23.0%
	3. 참 치	22.0	236.8	24.4	316.2	11.1%	33.5%
연체 동물	1. 문 어	73.2	566.7	72.3	588.6	-1.2%	3.9%
	2. 오징어	134.5	353.9	137.6	399.5	2.3%	12.9%
	3. 골뱅이	5.2	60.3	4.8	49.6	-6.4%	-17.7%
갑각류	1. 새 우	65.5	414.1	61.3	445.3	-6.5%	7.5%
	2. 새우살	37.0	330.9	44.1	409.7	19.2%	23.8%
	3. 킹크랩	7.9	235.1	10.2	237.4	30.0%	1.0%
	4. 랍스터	4.5	110.9	4.5	124.3	1.4%	12.1%

출처 : 한국농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참고문헌

1. 국가통계포털(KOSIS)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index/index.do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24.
   _____, 양정자료, 2023.
   _____, 예산개요, 2024.

3. 이준원,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 협력”, KDI 지식공유브리프. 2022년 Vol.2, pp 03~06.

4. 한국농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statistics/dashBoard.do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6. FAO World Food Situation,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